

## Others(Society)

T-23

**매복치의 외과적 자가이식에 의한 치험례**

테이블

\*김수진, 최인석, 박순정 / 분당제생병원치과진료부교정과

매복치는 그 원인이 매우 다양하며 이로 인한 부정교합은 교정 치료의 적응증이 된다. 치아의 매복은 어느 치아에서나 일어 날 수 있으나 제 3 대구치를 제외하고 견치, 제2 소구치가 그 빈도가 높은 편이다. 드물게 상악 중절치가 거꾸로 매복되는 경우, 성장기 아동에서 심한 심미적인 문제를 야기 하므로 조기에 치과에 내원하게 된다. 매복치에 대한 접근 방법으로는 매복치를 발거하고 보철적으로 수복하는 방법, 매복치를 수술로 노출시킨 후 교정적인 견인으로 제 위치시키는 방법, 그리고 치아가 심하게 매복된 경우에는 외과적으로 치아를 자가 이식하는 방법 등이 있다. 매복치를 수술로 노출시킨 후 교정적 견인을 시키는 경우에 일반적으로 긴 치료기간이 요구되며 그 위치나 이동의 양에 따라 그 예후가 좋지 않을 수도 있다. 따라서 외과적으로 치아 이식을 고려하는 것이 때로는 더 나은 결과를 가져올 수 있다.

본원에 내원한 매복치를 가진 환자들 가운데 외과적 자가이식의 적응증으로 판단되어, 배열을 위한 공간 확보와 관련된 교정치료를 하고 구강외과의와의 협진으로 자가이식을 시킨 치험례를 보고하고자 한다.

T-24

**설측교정시 전치부 각도에 대한 고려**

테이블

\*이정석, 박지영, 이기현, 황현식 / 전남대학교 치과대학 교정학교실

성인 교정의 증가와 함께 최근 설측교정도 크게 보급되어 시술되고 있다. 일반 교정과 다른 몇 가지를 이해한다면 설측 교정도 그리 어렵지 않게 시술될 수 있는데 치료 과정이나 술식의 차이점은 몇 번의 시행착오를 겪으며 극복할 수 있는 반면 어떤 것은 돌이킬 수 없는 심각한 문제를 초래할 수 있어 주의가 요해진다.

설측 교정 진료 시 가장 심각한 문제 중 하나는 소구치 발치의 경우 상악 전치부의 설측 경사(lingual tipping)인데 이는 대개 치근 흡수와 연관되므로 법적 문제로까지 비화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전치부 retraction을 위해 loop를 사용시 전치부 설측 경사를 막기 위해 gable bend를 부여하게 되는데 설측 bracket의 경우 순측이 아닌 설측에 bracket을 부착하게 되므로 gable bend에서 나타나는 vertical force는 순측에 비해 전치부 저항중심에 더욱 가깝게 지나가고 이로 인해 전치를 순측으로 경사시켜 지나친 설측 경사를 막고자하는 모멘트는 작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loop를 제작한 경우 설측교정시 전치부 설측 경사는 쉽게 나타날 수 있다. loop를 사용할 경우 이러한 문제와는 별도의 개념으로, 임상적 편의를 위해, 최근 sliding technique이 많이 이용되고 있다. 순측 교정과 달리 대부분의 임상가들은 Model을 치료 후 상태로 set-up하고 custom bracket base가 포함된 indirect bonding 방법으로 즉 CBA technique으로 브라켓을 부착하고 있다. 그러나 초진 시 전치가 순측 경사된 증례에서 이러한 방법으로 bracket을 부착하고 rectangular wire를 삽입하는 경우 전치에는 uncontrolled type의 설측 경사가 초래될 수 있다.

본 테이블클리닉은 설측 교정시 전치부 각도에 대한 사례깊은 주의가 필요함을 설명하고 indirect bonding을 위한 model set-up시 그리고 전치부 retraction을 위한 wire bending시 고려 사항을 증례와 함께 제시하고자 한다.